

# 한국인의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강 성 진\*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한국의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패널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각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 행복감의 결정변수들이 무엇인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지역별로 보면 1998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가 큰 지역은 경남, 울산, 충북과 부산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만족감을 보여주던 지역은 경북, 서울, 대구, 그리고 충남이었다. 반면에 2003년을 보면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는 지역은 인천이 가장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경남, 전남 그리고 대구 순이었다. 1998년과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동안 만족감의 변화한 정도를 보면 199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지역이 울산과 충북이다. 반면에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이었고 그 다음에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 순이었다. 개인들의 느끼는 행복감의 결정요인을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결과 1인당 소득 보다는 소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자신의 소득에 비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소득이 클수록 본인의 행복감은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 그 외에 사회 인구학적 요소 (또는 미래소득의 결정요인)들을 보면 연령의 경우 음의 선형관계라기 보다는 비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여성일수록 행복감을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있고 15세 이하의 가구원 수는 행복감과 양의 관계를 보이거나 60세 이상의 가구원 수는 음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 외에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 다른 국가들의 연구 즉, 교육수준과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와 비교 된다고 할 수 있다.

## 1. 서 론

인류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행복추구 (Happiness)에 있다고 한다. 과거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에 의해 행복추구의 과정이나 결정변수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개념의 주관성에 의해서 실증적 분석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Frey and Stutzer, 2002). 하지만 최근 행복추구에 대한 미시적 자료가 이용가능하면서 많은 실증경제학자들이 행복추구의 주관적 변수에 대한 결정요인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행복 또는 주관적well-being에 대한 자료는 최근의 많은 survey에서 관측되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경제 이론들은 인간 개인들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관측 가능한 선택에 의해 나타나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의 효용은 현시된 행위에 의해 추정되는 재화와 용역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136-701; email: sjkang@korea.ac.kr;  
tel: 3290- 2225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이들 행위에 의한 선택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아마 실증적 방법론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견해는 예를 들면 survey에 의해 관찰되는 자료는 관찰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과학적이라고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관찰되는 선택조합이 그 선택에 대한 효용을 설명하는 모든 정모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러한 현시선호이론은 개인의 효용함수를 도출하는데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하는데도 이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후생수준의 비교는 가구들의 소비행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소득 (또는 소비)에 의하여 인간의 만족도 혹은 행복감이 결정된다는 가설이 지지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1958년 이후 괄목한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실증분석은 전통적 경제학의 추구하는 효용함수의 가정에 의문을 던져준다. 또한, 국가별 분석에 의하면 1인당 GNP가 약 10,000불까지는 만족도가 소득과 정의 관계를 갖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의 미시적 자료를 이용한 행복감의 결정요인을 보면 자기 자신의 소득 이외에도 자기 자신의 과거 소득 혹은 미래의 소득 (Becker, 1974; Frank, 1985), 다른 상대방과의 상대적 소득 격차 (Easterlin, 1974, 1995), 실업상태 (Clark and Oswald, 1994; Winkelmann and Winkelmann, 1998), 민주제도 (Granato et al., 1996; Frey and Stutzer, 2000), 정치의 과당성 (Di Tella and MacCulloch, 1998), 사회적 규범 (Stutzer and Lalive, 2000) 그리고 소득분배 (Alesina et al., 2003) 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Frey and Stutzer (2002)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행복감의 결정요인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소로 자부심(self-esteem), 신경성의 특성(neuroticism) 그리고 낙천성 등에 의해 결정되고, 둘째, 사회인구학적요소로서 이는 연령, 성별, 결혼여부, 그리고 교육의 정도를 포함한다. 셋째, 경제적 요소로서 개별 혹은 집합적 소득,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결정되고, 넷째, 특정한 고용상태나 노동현장에서의 스트레스, 직장동료, 친구 그리고 친척들과의 인간적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변수로서 정치적 민주주의 성숙정도 또는 각 개인의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의 정도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한국의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패널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서 다음의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각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변화를 알아본다. 이는 연도별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변화를 알아본다.

둘째, 그 행복감의 결정변수들이 무엇인가를 비교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Clark and Oswald (1998)이 주장하였듯이 전통적인 소비이론에서 주장하는 개인별 효용함수의 독립성을 가정하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개인이 속한 지역의 평균소득(소비)의 자신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소득과 소비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지표가 각 개인의 후생수준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지표인가를 비교할 수 있고, 그 외에 미래의 소득 혹은 소비의 결정변수들 즉, 연령, 성별, 거주 지역 학력 및 직업 등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ordered probit 추정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의 연구에 비해 한국의 독특한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원의 수가 행복감과 양의 관계를 보여 주지만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반대로 행복감과 음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남으로 보여 줌으로써 서양 문화와의 비교 가능성을 보여 준다.

II 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를 소개하고 주요 결정변수들의 요약통계를 소개하고, III 장과 IV 장에서는 추정모형과 추정결과를 논의한다. V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 II. 자료 및 요약통계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매해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을 사용하고 있다. KLIPS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표집 (multi-stat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근거하여 1998년 당시 5,00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6차년도 현재 원표본가구의 유지율이 77%로써 같은 조사년도의 경우 미국의 PSID가 78%, 독일의 GSOEP가 79% 그리고 영국의 BHPS의 77%와 유사하여 자료의 신뢰도가 다른 패널조사와 신뢰도가 유사한 편이다. 이 자료는 표본 가구 및 개인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고용 및 실업, 소득 및 임금,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교육 및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전반에 걸친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자료의 탈락률에 의한 편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모든 개인들의 balanced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은 각각의 자료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표 1>을 보면 질문이 현재생활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를 1에서 5를 기준으로 대답한 값의 평균을 정리한 것이다. 질문의 형태는 마지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 질문은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이다. 1이라고 대답하면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의미하고 그 값이 증가하여 5라고 답하면 “매우 만족한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응답한 값의 평균의 증가는 각 질문에 대한 만족감의 증가를 의미한다.

<표 1>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보고 있는 KLIPS자료를 이용한 결과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3년까지 대부분의 지표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가 증가함을 보여주

---

1) 또 다른 패널자료는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된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 KHPS)가 있다. KHPS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가구별 및 개인별 특성 및 경제변수들을 다단계층화집락표집에 근거한 패널을 구성하고 이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연도변화에 따른 높은 탈락률 (attrition rate)과 가구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조사기간 6년 동안 거의 50 퍼센트의 가구가 탈락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제변수를 패널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가전에서 출발하여 위기 극복의 관정시기인 1997년 8월에서 1998년 7월까지의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중요변수인 여러 변수에 대한 만족감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기 위하여 요약통계를 <부표 1>, <부표 2>과 <부표 3>에 실려 있다.

고 있다.<sup>2)</sup> 단지 2002년에서 보면 가족의 수입과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보면 1998년에 2.501이었으나 2002년에 2.649 그리고 2003년에 2.612로 증가하였다.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감의 경우도 보면 1998년에 2.784였던 것이 1999년과 2000년에 감소하다가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857로 증가하였다. 그 외에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그리고 사회적 친분 관계 모두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중요 실증분석대상인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보면 1998년에 평균이 2.887이었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3.117과 3.182로 증가하였다.

<표 1> 생활에 대한 만족도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평균    | 개인수    |
|---------|-------|-------|-------|-------|-------|-------|-------|--------|
| 가족의 수입  | 2.501 | 2.579 | 2.518 | 2.554 | 2.649 | 2.612 | 2.569 | 41,940 |
| 여가활동    | 2.784 | 2.778 | 2.769 | 2.789 | 2.871 | 2.857 | 2.808 | 41,945 |
| 주거환경    | 3.079 | 3.172 | 3.156 | 3.152 | 3.214 | 3.250 | 3.170 | 41,941 |
| 가족관계    | 2.722 | 3.713 | 3.614 | 3.573 | 3.607 | 3.628 | 3.643 | 41,928 |
| 친인척관계   | n.a.  | n.a.  | 3.426 | 3.407 | 3.423 | 3.429 | 3.421 | 27,981 |
| 사회적친분관계 | n.a.  | 2.940 | 3.392 | 3.375 | 3.382 | 3.401 | 3.298 | 34,970 |
| 전반적 활동  | 2.887 | 2.946 | 3.054 | 3.079 | 3.117 | 3.182 | 3.044 | 41,919 |

<표 2>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각 지역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지역별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조사시점이 1998년 6월 2일에서 10월 13일에 이루어져 응답이 외환위기 중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 1998년을 보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가 큰 지역은 경남 (3.206), 울산 (3.160), 충북 (3.143)과 부산 (3.125)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만족감을 보여주던 지역은 경북 (2.675), 서울 (2.726), 대구 (2.776), 그리고 충남 (2.786)이었다. 반면에 2003년을 보면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는 지역은 인천이 가장 높은 만족감을 보여줘 3.305이고 그 다음으로 경남이 3.292, 전남이 3.280 그리고 대구가 3.214이었다. 1998년과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동안 행복감의 변화한 정도를 보면 199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지역이 울산과 충북이다. <표 3>을 보면 1998년을 1로 할 때 2003년에 울산이 0.990이고 충북이 0.984이다. 반면에 많이 증가한 지역은 2003년에 1998년에 비해 1.196을 보여주는 경북이었고 그 다음에 인천 (1.172), 대구 (1.158) 그리고 서울(1.140)이었다.

2) 1차 조사시점이 1998년 4월에서 10월에 이루어 졌으므로 현재시점이라 함은 외환위기가 완전히 극복되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 시점을 외환위기 중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연도의 값들을 외환위기 이후로 정의한다.

<표 2> 지역별 전반적 만족감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평균    | 개인수   |
|--------|-------|-------|-------|-------|-------|-------|-------|-------|
| 서울(1)  | 2.726 | 2.908 | 2.982 | 3.014 | 3.056 | 3.107 | 2.963 | 9,700 |
| 부산(2)  | 3.125 | 3.095 | 2.991 | 3.042 | 3.075 | 3.177 | 3.084 | 4,816 |
| 대구(3)  | 2.776 | 2.917 | 3.048 | 3.064 | 3.071 | 3.214 | 3.015 | 2,110 |
| 대전(4)  | 2.795 | 2.788 | 3.128 | 3.345 | 3.156 | 3.179 | 3.066 | 1,492 |
| 인천(5)  | 2.819 | 2.947 | 3.024 | 3.161 | 3.070 | 3.305 | 3.055 | 2,500 |
| 광주(6)  | 2.946 | 2.936 | 3.049 | 2.971 | 3.114 | 3.121 | 3.024 | 1,233 |
| 울산(7)  | 3.160 | 2.914 | 2.932 | 3.017 | 3.078 | 3.129 | 3.038 | 1,396 |
| 경기(8)  | 2.895 | 2.980 | 3.204 | 3.102 | 3.171 | 3.209 | 3.097 | 6,941 |
| 강원(9)  | 2.826 | 2.794 | 2.910 | 2.931 | 3.036 | 3.106 | 2.935 | 816   |
| 충북(10) | 3.143 | 2.994 | 3.187 | 3.331 | 3.129 | 3.091 | 3.147 | 996   |
| 충남(11) | 2.786 | 2.765 | 3.039 | 3.085 | 3.084 | 3.152 | 2.985 | 1,402 |
| 전북(12) | 2.800 | 2.889 | 3.126 | 3.228 | 3.316 | 3.171 | 3.088 | 1,735 |
| 전남(13) | 2.929 | 2.779 | 3.005 | 3.136 | 3.172 | 3.280 | 3.050 | 1,285 |
| 경북(14) | 2.675 | 2.761 | 2.899 | 2.856 | 3.068 | 3.199 | 2.909 | 2,310 |
| 경남(15) | 3.206 | 3.216 | 3.187 | 3.179 | 3.237 | 3.292 | 3.220 | 3,181 |

<표 3> 지역별 전반적 만족감 (1988=1)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평균    | 개인수   |
|--------|-------|-------|-------|-------|-------|-------|-------|-------|
| 서울(1)  | 1.000 | 1.067 | 1.094 | 1.106 | 1.121 | 1.140 | 1.087 | 9,700 |
| 부산(2)  | 1.000 | 0.990 | 0.957 | 0.973 | 0.984 | 1.017 | 0.987 | 4,816 |
| 대구(3)  | 1.000 | 1.051 | 1.098 | 1.104 | 1.106 | 1.158 | 1.086 | 2,110 |
| 대전(4)  | 1.000 | 0.998 | 1.119 | 1.197 | 1.129 | 1.137 | 1.097 | 1,492 |
| 인천(5)  | 1.000 | 1.045 | 1.073 | 1.121 | 1.089 | 1.172 | 1.084 | 2,500 |
| 광주(6)  | 1.000 | 0.997 | 1.035 | 1.009 | 1.057 | 1.059 | 1.027 | 1,233 |
| 울산(7)  | 1.000 | 0.922 | 0.928 | 0.955 | 0.974 | 0.990 | 0.961 | 1,396 |
| 경기(8)  | 1.000 | 1.029 | 1.107 | 1.072 | 1.095 | 1.109 | 1.070 | 6,941 |
| 강원(9)  | 1.000 | 0.989 | 1.030 | 1.037 | 1.074 | 1.099 | 1.039 | 816   |
| 충북(10) | 1.000 | 0.953 | 1.014 | 1.060 | 0.996 | 0.984 | 1.001 | 996   |
| 충남(11) | 1.000 | 0.993 | 1.091 | 1.107 | 1.107 | 1.131 | 2.985 | 1,402 |
| 전북(12) | 1.000 | 1.032 | 1.116 | 1.153 | 1.184 | 1.133 | 1.103 | 1,735 |
| 전남(13) | 1.000 | 0.949 | 1.026 | 1.071 | 1.083 | 1.120 | 1.041 | 1,285 |
| 경북(14) | 1.000 | 1.031 | 1.084 | 1.068 | 1.147 | 1.196 | 1.088 | 2,310 |
| 경남(15) | 1.000 | 1.003 | 0.994 | 0.992 | 1.010 | 1.027 | 1.004 | 3,181 |

### III. 추정모형

주관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개인적인 평가에 의존하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Blanchflower and Oswald (2000)의 모형을 수정하여 다음의 모형을 추정하고

자 한다.

$$W_{ijt} = H[U(c_{ijt}, c_{jt}, x_{ijt})] \quad (1)$$

여기서  $W_{ijt}$ 는 j지역에 사는 개인 i의 t시점에 있어서 느끼고 있는 행복감의 지표를 의미하고, 함수  $U[\cdot]$ 는 각 개인의 후생이나 효용수준을 의미하고 이는 단지 개인 자신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관찰되어진다. 따라서 정확한 함수 형태는 다른 개인이 인터뷰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효용함수를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c_{ijt}$ 는 지역 j에 살고 있는 개인 i의 t현 시점에 있어서 소비(소득)수준이고,  $c_{jt}$ 는 같은 시점에 있어서 지역j의 평균소비(소득)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 번째 결정변수,  $c_{jt}$ 는 개인 i의 소비(소득)의 본인이 속한 지역의 평균에 대한 상대적 소비(소득)수준을 의미한다.<sup>3)</sup> 마지막 항인  $x_{ijt}$ 는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인 i의 미래소비(소득)를 결정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함수  $H[\cdot]$ 는 U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위의 함수 모형 (1)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_{ijt} = \alpha_1 + \ln c_{ijt} + \ln c_{jt} + x_{ijt} + \epsilon_{ijt} \quad (2)$$

여기서  $\alpha_1$ 은 상수항이고  $\ln c_{ijt}$ 와  $\ln c_{jt}$ 는 t시점에서 각각 j지역에 사는 개인 i의 소득(소비)수준을 의미하고,  $x_{ijt}$ 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개인의 항상소득(소비)을 결정하는 개인특성을 반영하는 각종 변수들의 값(혹은 더미)을 반영하고,  $\epsilon_{ijt}$ 는 정규분포를 하는 잘 정의된 잔차항이다.<sup>4)</sup>

이 모형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수는 소득과 소비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소비가설에 의하면 유산을 받거나 물려주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시기, 즉, 청년이나 노년기에는 자신의 소비수준이 소득수준보다 높아 저축이 마이너스가 나타나지만 이는 소득이 높은 시점에서 저축을 통해서 이 부족분이 채워진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일생에 걸친 자신의 소비의 현재가치와 소득의 현재가치가 같아지게 된다. 이런 경우 현재시점에서의 후생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소득수준이라기보다는 소비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KLIPS와 같이 가구나 개인의 인터뷰를 통한 소득 및 소비자료를 얻는 경우 각 개인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은 과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sup>5)</sup> 따라서 한국인의 경우에도 현 상태에 대한 행복감의 경우가 소득과 소비 중에 어느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상관계수와 추정결과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sup>6)</sup>

3) 외부성의 비대칭성을 강조한 상대적소득가설은 Duesenberry (1949)에 의해 제시되고 계량적으로 검증된 가설이다.

4) 잔차항에 대한 정규분포의 가정은 뒤에서 ordered probit 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ordered logit모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잔차항이 logit분포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어느 분포를 가정하느냐는 분석의 편이에 따르는 것이나 적절한 선택은 그 분야에서 많이 쓰는 추정방법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다 (Long, 1997).

5) 이러한 경제변수의 선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eaton (1997)을 참고.

둘째,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효용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자기 자신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중요한 효용수준의 결정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 개인들의 소득 또는 소비의 수준이 각 개인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보기 위하여 KLIPS 자료에 포함된 15개 지역별 평균 소득 (소비)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각 개인의 미래소득의 잠재적 결정요인 또는 이들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으로써 각 개인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과 거주지역 변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연령과 행복감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여 주지만 선형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U형 관계를 보여 준다 (Oswald, 1997; Blanchflower and Oswald, 2000).<sup>7)</sup>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White 1992). 이러한 성별 차이는 아마도 저돌적 행위, 화낸 상태, 슬픔, 고통, 반사회적 인간성 그리고 의존성 등에 의존하고, 또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행복감에 대한 반응이 남성보다 크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Wood, Rhodes, and Whelan, 1989). 그 외에 교육수준과 직업은 미래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정된다. Clark and Oswald (1994)에 의하면 교육수준은 행복감과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학력자들이 실업에 의한 충격이 저학력자들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변수들이 현재소득의 중요한 결정변수가 된다고 볼 때 이들이 소득이나 소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다. <부표 4>는 각 지역별로 추정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요약 통계량이 그리고 <부표 5>는 소득 및 소비 변수와 추정식에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양문화권의 특색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변수들로서 가구원의 크기와 각 개별 구성원의 행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구주 자신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사회의 경우 가부장적 제도가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구주가 더 많이 느낀다고도 할 수 있다.

## IV. 추정결과

원시자료에 포함된 선호순위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ordered probit 모형을 사용한다. 이 경우 종속변수가 연속적인 값을 갖지 않고 또한 자료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값은 큰 값이 상대적으로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

---

6) KLIPS자료는 각 개인별 소득과 소비자료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본 연구는 각 가구소득의 1인당 소득으로 가정하고 있다. 각 가구의 크기는 규모의 경제와 규범의 경제를 무시하여 가구 구성원의 단순한 합으로 정의한다.

7) 이들의 추정식에는 연령변수 이외에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변수를 통제한다. 따라서 노년층의 행복의 정도는 본인이 건강한 상태이나 아니냐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형회귀방식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ordered Probit 모형을 쓰고자 한다. 이 경우 식 (2)에서 잔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sup>9)</sup>

먼저 소득과 소비 중 어느 변수가 행복감과 관계가 깊은지를 사전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변수와 행복감과의 단순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sup>10)</sup> 먼저 1인당 소득과 행복감의 상관계수를 보면 0.193이지만 1인당 소비와의 상관계수는 0.122로 다른 결정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상관계수를 보면 소득의 상관관계가 소비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 외에 1인당 소비는 1인당 지역 소득과 0.295의 상관계수를 보여 주고 지역소득과 개인소득의 상관계수는 0.437이고 지역소비와 개인 소비는 0.384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표 4> 상관계수: 전반적 만족감과 소득 및 소비(1998~2003)

|               | 전반적 행복감 | log(1인당 소득) | log(1인당 소비) | log(1인당 지역소득) | log(1인당 지역 소비) |
|---------------|---------|-------------|-------------|---------------|----------------|
| 전반적 행복감       | 1.000   |             |             |               |                |
| log(1인당 소득)   | 0.193   | 1.000       |             |               |                |
| log(1인당 소비)   | 0.122   | 0.301       | 1.000       |               |                |
| log(1인당 지역소득) | 0.093   | 0.437       | 0.295       | 1.000         |                |
| log(1인당 지역소비) | 0.051   | 0.338       | 0.384       | 0.772         | 1.000          |

<표 5>는 ordered probit 추정결과를 보여준다.<sup>11)</sup> 먼저,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 경우에 소득과 소비를 보면 앞의 <표 4>와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1)과 (3)을 비교하면 같은 독립변수들의 조합 하에서 log(1인당 소득)의 계수는 0.195이지만 log(1인당 소비)는 0.400으로 거의 2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개별 특성들을 통제하는 경우 소비의 영향이 소득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일생주기가설에서 언급되었듯이 각 개인의 정확한 후생 수준의 변화는 그 당시의 소득 수준보다는 소비수준이 더 좋은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소득가설의 경우에서처럼 지역별 평균소득의 자신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을 보면, 모델 (2)와 (4)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음의 부호를 보여주고 통계적으로도 1 퍼센트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sup>12)</sup>

8) 자세한 논의는 Long (1997)을 참고.

9) 여기서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unweighted 추정방법을 사용한다.

10) 소득 및 소비 변수는 연도별 및 지역별 2000년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전환된 실질변수를 사용하였다.

11) 다른 추정방법인 ordered logit 추정방법에 의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2) 엄밀하게 말하면 각 지역의 평균소득은 개인 당사자의 소득이나 소비를 뺀 값에서의 1인당 소득이나 소비를 구해야 하지만 각 지역의 구성원의 수가 매우 크므로 각 개인의 주는 영향을 무시할 만하다. 따라서 각 지역 평균소득과 소비는 각 개인의 값도 동시에 고려된 값의 평균이다.

둘째로 연령의 경우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덜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연구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표 5>가 보여 주듯이 연령의 제곱항이 마이너스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비선형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비록 앞의 연구들처럼 건강변수가 독립변수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두 변수의 비 선형관계가 한국 국민들에게도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들처럼 여성이 남성에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논의 했듯이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그 이유에 대한 통일된 가설은 없다.

넷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있다.<sup>13)</sup> 이는 다른 경제변수나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는 경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덜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가구주의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가구주의 경우 같은 소득이나 사회 인구학적 상황에서 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의 과도함 등으로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각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구주의 역할과 함께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5세 이하나 60세 이상의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원의 수의 증가는 가구주에게는 행복감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전체 가구원에게는 행복감의 증가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연속되는 변수로 15세 이하의 수가 많을수록 각 가구의 구성원의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증가는 반대로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행복감과 매우 강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중고졸자나 대졸자의 경우 모델 (1)을 보면 각각 0.271과 0.618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직업의 경우 실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가 더 강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 (1)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델의 결과는 199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2003년으로 올수록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의 <표 1>과 <표 2>에서 보여준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한국의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패널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서 외환위

---

13) 도시는 15개 지역구분에서 7개의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로 정의됨.

기를 거친 후 각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 행복감의 결정변수들이 무엇인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지역별로 보면 1998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가 큰 지역은 경남, 울산, 충북과 부산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만족감을 보여주던 지역은 경북, 서울, 대구, 그리고 충남이었다. 반면에 2003년을 보면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는 지역은 인천이 가장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경남, 전남 그리고 대구 순이었다. 1998년과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동안 만족감의 변화한 정도를 보면 199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지역이 울산과 충북이다. 반면에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이었고 그 다음에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 순이었다.

개인들의 느끼는 행복감의 결정원인을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소득 보다는 소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자신의 소득에 비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소득이 클수록 본인의 행복감은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 그 외에 사회 인구학적 요소 (또는 미래소득의 결정요인)들을 보면 연령의 경우 음의 선형관계라기 보다는 비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여성일수록 행복감을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있고 15세 이하의 가구원 수는 행복감과 양의 관계를 보이거나 60세 이상의 가구원 수는 음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 외에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 일수록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 다른 국가들의 연구 즉, 교육수준과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와 비교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실증분석결과

|                       | 모델 (1)               | 모델 (2)               | 모델 (3)               | 모델 (4)               |
|-----------------------|----------------------|----------------------|----------------------|----------------------|
| log(1인당 소득)           | 0.195<br>(41.38)**   | 0.199<br>(41.99)     |                      |                      |
| log(1인당 지역 소득)        |                      | -0.256<br>(-11.11)   |                      |                      |
| log(1인당 소비)           |                      |                      | 0.400<br>(27.13)**   | 0.411<br>(27.09)**   |
| log(1인당 지역 소비)        |                      |                      |                      | -0.495<br>(-9.42)**  |
| 연령                    | -0.020<br>(-11.52)** | -0.020<br>(-11.47)** | -0.021<br>(-12.44)** | -0.021<br>(-12.33)** |
| 연령의 제곱/1000           | 0.238<br>(12.43)**   | 0.238<br>(12.43)**   | 0.253<br>(13.30)**   | 0.252<br>(13.22)**   |
| 여성                    | 0.063<br>(4.70)**    | 0.064<br>(4.78)**    | 0.061<br>(4.62)**    | 0.062<br>(4.70)**    |
| 도시거주                  | -0.168<br>(-16.86)** | -0.155<br>(-15.51)** | -0.181<br>(-18.13)** | -0.132<br>(-11.89)** |
| 가구주                   | -0.049<br>(-3.10)**  | -0.048<br>(-3.01)**  | -0.054<br>(-3.44)**  | -0.054<br>(-3.45)**  |
| 가구원수                  | 0.034<br>(7.81)**    | 0.035<br>(8.05)**    | 0.042<br>(9.55)**    | 0.042<br>(9.65)**    |
| 15세 이하 가구원 수          | 0.049<br>(7.82)**    | 0.050<br>(7.89)**    | 0.057<br>(9.01)**    | 0.057<br>(9.06)**    |
| 60세 이상 가구원수           | -0.061<br>(-7.08)**  | -0.063<br>(-7.28)**  | -0.035<br>(-3.94)**  | -0.035<br>(-4.03)**  |
| 중학교 또는 고졸             | 0.271<br>(16.85)**   | 0.276<br>(17.12)**   | 0.240<br>(14.73)**   | 0.246<br>(15.05)**   |
| 대학이상 졸                | 0.618<br>(32.52)**   | 0.626<br>(32.87)**   | 0.575<br>(29.22)**   | 0.583<br>(29.54)**   |
| 임금근로자                 | 0.086<br>(5.39)**    | 0.115<br>(9.54)**    | 0.149<br>(12.42)**   | 0.151<br>(12.58)**   |
| 자영업                   | 0.086<br>(5.39)**    | 0.080<br>(5.01)**    | 0.085<br>(5.31)**    | 0.083<br>(5.15)**    |
| 연도 2000               | 0.162<br>(10.09)**   | 0.132<br>(8.06)**    | 2.430<br>(28.17)**   | -0.372<br>(-1.25)    |
| 연도 2001               | -0.151<br>(-8.14)**  | 0.239<br>(6.01)**    | 0.186<br>(11.58)**   | 0.238<br>(14.08)**   |
| 연도 2002               | -0.154<br>(-8.13)**  | 0.293<br>(6.57)**    | 0.153<br>(9.58)**    | 0.292<br>(13.54)**   |
| 연도 2003               | -0.002<br>(-0.09)    | 0.454<br>(9.98)**    | 0.278<br>(16.73)**   | 0.461<br>(18.22)**   |
| Log pseudo Likelihood | -52,750.6            | -52,679.6            | -52,934.3            | -52,888.6            |
| 개인 수                  | 54,002               | 54,002               | 54,002               | 54,002               |
| Pseudo R2             | 0.05                 | 0.06                 | 0.05                 | 0.05                 |

주: 괄호 안은 z값임. \*\*은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하고 \*는 5%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참고문헌

- Alesina, A., R. Di Tella and R. MacCulloch(2003),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2003, Journal of Public Economics, .
- Becker, G.S.(1974),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63-1093.
- Dusenberry, J.S.(1949), Income, Savings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lanchflower, D., Oswald, A.(2000).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NBER Working Paper no. 7487,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lark, A. and A. Oswald(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104, 648-659.
- Di Tella, R., and R. MacCulloch(1998). Partisan Social Happiness, Mimeo,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 Easterlin, R.(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 David, P., Reder, M.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Academic Press, New York.
- \_\_\_\_\_(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1), 35-48.
- Frank, B.S.(1985), Choosing the Right Pond, New York: Putman.
- Frey, B., and A. Stutzer(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110(446), 918-938.
- \_\_\_\_\_(2002),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and Oxford.
- Granato, J., R. Inglehart, and D. Leblang(1996), "Cultural values, stable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repl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3), 680-696.
- Long, J.S.(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SAGE Publications: London.
- Oswald, A.J.(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Journal, 107(445), 1815-1831.
- Stutzer, A., and R. Lalive(2000), The Role of Social Norms in Job Searching and Subjective Well-being, Working Paper no. 51, Institute of Empirical Research in Economics, University of Zurich.

White, J.M.(1992), "Marital Status and Well-being in Canada," *Journal of Family Issues*, 13, 390-409.

Winkelmann, L. and R. Winkelmann(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257), 1-15.

<부표 1> 생활에 대한 만족도 (KHPS 자료)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평균    | 개인수    |
|--------|-------|-------|-------|-------|-------|-------|-------|--------|
| 경제적 여건 | 2.646 | 2.703 | n.a.  | 2.595 | 2.590 | 2.387 | 2.584 | 19,177 |
| 건강     | 3.261 | 3.232 | n.a.  | 3.134 | 3.056 | 3.108 | 3.158 | 19,183 |
| 여가활동   | 2.654 | 2.675 | n.a.  | 2.502 | 2.543 | 2.670 | 2.610 | 19,166 |
| 가족관계   | 3.919 | n.a.  | n.a.  | n.a.  | n.a.  | n.a.  | 3.919 | 3,836  |
| 다른가족관계 | n.a.  | 3.889 | n.a.  | 3.757 | 3.689 | 3.749 | 3.771 | 15,301 |
| 부부관계   | n.a.  | 3.891 | n.a.  | 3.737 | 3.673 | 3.675 | 3.744 | 13,495 |
| 전반적활동  | n.a.  | n.a.  | 2.933 | 3.055 | 3.083 | 3.062 | 3.037 | 14,789 |

주: n.a.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임.

<부표 2> KHPS 자료 지역별 전반적 만족감

|        | 1995  | 1996  | 1997  | 1998  | 평균    | 개인수   |
|--------|-------|-------|-------|-------|-------|-------|
| 서울(1)  | 3.021 | 3.057 | 3.145 | 3.046 | 3.071 | 3,109 |
| 부산(2)  | 3.033 | 3.093 | 3.094 | 3.137 | 3.089 | 1,491 |
| 대구(3)  | 2.958 | 2.888 | 2.976 | 3.058 | 2.970 | 811   |
| 대전(4)  | 2.990 | 3.102 | 3.010 | 2.583 | 2.917 | 398   |
| 인천(5)  | 2.825 | 3.277 | 3.073 | 3.084 | 3.085 | 611   |
| 광주(6)  | 2.839 | 2.980 | 3.061 | 2.879 | 2.941 | 388   |
| 울산(7)  | .     | .     | .     | 2.857 | 2.857 | 49    |
| 경기(8)  | 3.105 | 2.994 | 3.151 | 3.062 | 3.076 | 1,785 |
| 강원(9)  | 2.891 | 3.082 | 3.032 | 3.073 | 3.027 | 585   |
| 충북(10) | 3.038 | 3.176 | 3.013 | 3.213 | 3.109 | 633   |
| 충남(11) | 2.730 | 3.112 | 3.056 | 3.144 | 3.010 | 860   |
| 전북(12) | 2.767 | 2.936 | 3.221 | 3.116 | 3.020 | 594   |
| 전남(13) | 2.491 | 2.822 | 2.862 | 3.049 | 2.808 | 960   |
| 경북(14) | 2.874 | 3.035 | 2.948 | 2.990 | 2.962 | 1,245 |
| 경남(15) | 3.043 | 3.233 | 3.218 | 3.186 | 3.170 | 1,268 |

<부표 3> KHPS 자료 지역별 전반적 만족감

|        | 1995  | 1996  | 1997  | 1998  | 평균    | 개인수   |
|--------|-------|-------|-------|-------|-------|-------|
| 서울(1)  | 1.000 | 1.012 | 1.041 | 1.008 | 1.167 | 3,109 |
| 부산(2)  | 1.000 | 1.098 | 1.020 | 1.034 | 1.021 | 1,491 |
| 대구(3)  | 1.000 | 1.024 | 1.006 | 1.034 | 1.004 | 811   |
| 대전(4)  | 1.000 | 1.038 | 1.007 | 0.864 | 0.976 | 398   |
| 인천(5)  | 1.000 | 1.160 | 1.088 | 1.092 | 1.092 | 611   |
| 광주(6)  | 1.000 | 1.050 | 1.078 | 1.014 | 1.036 | 388   |
| 울산(7)  | 1.000 | .     | .     | 1.000 | 1.000 | 49    |
| 경기(8)  | 1.000 | 0.964 | 1.105 | 0.986 | 0.991 | 1,785 |
| 강원(9)  | 1.000 | 1.066 | 1.049 | 1.063 | 1.047 | 585   |
| 충북(10) | 1.000 | 1.045 | 0.992 | 1.058 | 1.023 | 633   |
| 충남(11) | 1.000 | 1.140 | 1.119 | 1.152 | 1.103 | 860   |
| 전북(12) | 1.000 | 1.061 | 1.164 | 1.126 | 1.091 | 594   |
| 전남(13) | 1.000 | 1.133 | 1.149 | 1.224 | 1.127 | 960   |
| 경북(14) | 1.000 | 1.056 | 1.026 | 1.040 | 1.031 | 1,245 |
| 경남(15) | 1.000 | 1.062 | 1.058 | 1.047 | 1.042 | 1,268 |

<부표 4> 지역별 주요변수들의 요약통계

|        | 소득     | 소비     | 지역소득   | 지역소비   | 연령    | 여성   | 가구주  |
|--------|--------|--------|--------|--------|-------|------|------|
| 서울(1)  | 449.74 | 299.36 | 437.36 | 296.24 | 43.70 | 0.55 | 0.43 |
| 부산(2)  | 378.85 | 268.93 | 358.47 | 261.53 | 44.23 | 0.56 | 0.42 |
| 대구(3)  | 338.19 | 307.39 | 327.29 | 295.72 | 44.51 | 0.55 | 0.45 |
| 대전(4)  | 403.58 | 275.11 | 380.80 | 265.23 | 42.26 | 0.54 | 0.42 |
| 인천(5)  | 312.54 | 254.96 | 318.13 | 254.83 | 44.42 | 0.53 | 0.42 |
| 광주(6)  | 409.01 | 297.49 | 371.68 | 271.29 | 44.59 | 0.58 | 0.43 |
| 울산(7)  | 512.40 | 304.02 | 511.38 | 301.09 | 42.74 | 0.56 | 0.40 |
| 경기(8)  | 416.49 | 290.67 | 411.25 | 276.85 | 44.61 | 0.55 | 0.44 |
| 강원(9)  | 497.22 | 28.67  | 426.88 | 233.90 | 48.83 | 0.53 | 0.47 |
| 충북(10) | 427.82 | 246.47 | 389.51 | 246.19 | 45.69 | 0.57 | 0.41 |
| 충남(11) | 309.91 | 189.11 | 303.04 | 185.75 | 49.58 | 0.54 | 0.43 |
| 전북(12) | 371.60 | 269.71 | 340.18 | 248.17 | 49.66 | 0.55 | 0.46 |
| 전남(13) | 419.83 | 253.59 | 390.73 | 243.97 | 47.08 | 0.57 | 0.49 |
| 경북(14) | 285.97 | 231.05 | 283.24 | 232.48 | 48.93 | 0.54 | 0.46 |
| 경남(15) | 381.38 | 258.87 | 352.49 | 247.95 | 43.21 | 0.53 | 0.42 |

|        | 가구원수 | 15세 이하 | 60세 이상 | 중고졸  | 대출   | 임금근로자 | 자영업  |
|--------|------|--------|--------|------|------|-------|------|
| 서울(1)  | 3.78 | 0.62   | 0.40   | 0.55 | 0.28 | 0.38  | 0.16 |
| 부산(2)  | 3.80 | 0.56   | 0.46   | 0.57 | 0.22 | 0.38  | 0.16 |
| 대구(3)  | 3.70 | 0.52   | 0.42   | 0.54 | 0.23 | 0.38  | 0.16 |
| 대전(4)  | 4.07 | 0.73   | 0.36   | 0.49 | 0.30 | 0.37  | 0.17 |
| 인천(5)  | 4.02 | 0.66   | 0.50   | 0.59 | 0.20 | 0.39  | 0.16 |
| 광주(6)  | 3.62 | 0.64   | 0.49   | 0.44 | 0.33 | 0.34  | 0.17 |
| 울산(7)  | 4.14 | 0.71   | 0.42   | 0.60 | 0.21 | 0.41  | 0.13 |
| 경기(8)  | 3.88 | 0.84   | 0.49   | 0.54 | 0.24 | 0.40  | 0.16 |
| 강원(9)  | 3.68 | 0.69   | 0.72   | 0.43 | 0.18 | 0.28  | 0.20 |
| 충북(10) | 3.89 | 0.56   | 0.19   | 0.57 | 0.19 | 0.31  | 0.20 |
| 충남(11) | 3.82 | 0.58   | 0.87   | 0.38 | 0.13 | 0.27  | 0.27 |
| 전북(12) | 3.66 | 0.53   | 0.68   | 0.45 | 0.18 | 0.31  | 0.23 |
| 전남(13) | 3.62 | 0.77   | 0.51   | 0.39 | 0.24 | 0.30  | 0.27 |
| 경북(14) | 3.45 | 0.59   | 0.72   | 0.46 | 0.14 | 0.26  | 0.32 |
| 경남(15) | 3.91 | 0.64   | 0.46   | 0.52 | 0.24 | 0.35  | 0.22 |

<부표 5> 주요변수들의 상관계수

|               | 행복감    | 연령     | 연령제곱   | 여성     | 도시거주   | 가구주    | 가구원수   | 15세 이하<br>가구원 |
|---------------|--------|--------|--------|--------|--------|--------|--------|---------------|
| 행복감           | 1.000  |        |        |        |        |        |        |               |
| 연령            | -0.112 | 1.000  |        |        |        |        |        |               |
| 연령제곱          | -0.116 | 0.980  | 1.000  |        |        |        |        |               |
| 여성            | -0.006 | 0.031  | 0.043  | 1.000  |        |        |        |               |
| 도시거주          | -0.050 | -0.054 | -0.058 | -0.006 | 1.000  |        |        |               |
| 가구주           | -0.043 | 0.336  | 0.279  | -0.587 | -0.023 | 1.000  |        |               |
| 가구원수          | 0.052  | -0.206 | -0.210 | 0.010  | 0.006  | -0.258 | 1.000  |               |
| 15세 이하<br>가구원 | 0.050  | -0.142 | -0.188 | 0.003  | -0.068 | 0.062  | 0.345  | 1.000         |
| 60세 이상<br>가구원 | -0.082 | 0.517  | 0.568  | 0.013  | -0.075 | -0.026 | -0.024 | -0.175        |
| 중, 고졸         | -0.048 | -0.161 | -0.193 | -0.040 | 0.035  | 0.011  | 0.089  | 0.133         |
| 대학이상졸         | 0.192  | -0.348 | -0.334 | -0.119 | 0.045  | -0.052 | 0.042  | 0.006         |
| 임금근로자         | 0.071  | -0.166 | -0.210 | -0.179 | 0.030  | 0.186  | -0.006 | 0.070         |
| 자영업           | -0.015 | 0.141  | 0.095  | -0.181 | -0.054 | 0.270  | 0.002  | 0.046         |
| log(소득)       | 0.193  | -0.019 | -0.029 | -0.015 | 0.016  | 0.016  | -0.089 | -0.048        |
| log(소비)       | 0.122  | -0.026 | -0.033 | -0.011 | 0.033  | 0.021  | -0.084 | -0.054        |

|               | 60세 이상<br>가구원 | 중, 고졸  | 대학이상졸  | 임금근로자  | 자영업   | log(소득) | log(소비) |
|---------------|---------------|--------|--------|--------|-------|---------|---------|
| 행복감           |               |        |        |        |       |         |         |
| 연령            |               |        |        |        |       |         |         |
| 연령제곱          |               |        |        |        |       |         |         |
| 여성            |               |        |        |        |       |         |         |
| 도시거주          |               |        |        |        |       |         |         |
| 가구주           |               |        |        |        |       |         |         |
| 가구크기          |               |        |        |        |       |         |         |
| 15세 이하<br>가구원 |               |        |        |        |       |         |         |
| 60세 이상<br>가구원 | 1.000         |        |        |        |       |         |         |
| 중, 고졸         | -0.187        | 1.000  |        |        |       |         |         |
| 대학이상졸         | -0.135        | -0.648 | 1.000  |        |       |         |         |
| 임금근로자         | -0.180        | 0.018  | 0.134  | 1.000  |       |         |         |
| 자영업           | -0.005        | 0.054  | -0.081 | -0.316 | 1.000 |         |         |
| log(소득)       | -0.053        | -0.055 | 0.148  | 0.042  | 0.003 | 1.000   |         |
| log(소비)       | --0.066       | -0.038 | 0.117  | 0.020  | 0.000 | 0.301   | 1.000   |